

나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만나기 (20 팀 김준영 강민규 이재영 이호연)

저희 팀이 생각한 2040 – 2050 년도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김영욱 교수님의 견해를 여쭈어 봤습니다.

교수님의 견해:

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에 누리게 될 기술들을 고민해본 흔적이 엿보입니다.

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의 측면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이동교통수단 및 드론 택배 시스템이 도심에서 운행되다가 서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기술 뿐만 아니라 하늘길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실제 기술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20팀: 김준영, 강민규, 이재영, 이호연

우리가 상상한 미래

하늘을 나는 개인교통수단 & 수직이착륙 택시:
한국의 좋은 땅의 한계를 극복한 공중 이동수단으로, 금한 이동 시 지상 교통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.

레벨 5 완전자율주행차:
모든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완전 자동화 차량이다. 신도시에서는 자율 서비스가 대중교통의 핵심이 되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.

인공지능 (AI) & 휴머노이드 로봇:
2040년대에는 인간형 로봇이 가정에 보급되고,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가 일상 속 다양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.

에너지 제로 하우스:
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는 친환경 주택으로,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돋는 핵심 요소이다.

드론 택배 시스템:
아파트 육상 등 전용 착륙장에 드론이 신속하게 물품을 배송하는 시대가 된다. 주문 후 몇 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.

메타버스 교실:
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아도 가장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만나 학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급화 된다.

AR 인경 및 렌즈형 기기:
스마트폰 기능을 대체하는 착용형 AR 기기로, 손짓, 시선, 뇌파 등으로 조작할 수 있다. 길 안내, 통화,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.

도시 운영 최적화 AI:
센서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낭비방, 배수, 공기질 등을 자동 조정하여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.

스마트 헬스케어:
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.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, 원격의료 기기로 집에서도 간단한 시술이 가능해진다.

미래에 가까워 지고 있는 현재 기술:

- 하늘을 나는 개인교통 수단 → 전용기, 비즈니스 제트기, 한국의 스타트업인 플라나(Plana)가 현재 eVTOL 을 개발중에 있다
- 레벨 5 완전자율주행차 → 테슬라 레벨 2 자율주행차, 메르세데스-벤츠의 레벨 3 자율주행차
- 에너지 제로 하우스 → 유럽 연합에서는 2030년부터 짓는 건물은 Zero-Emission, 즉 탄소배출 제로라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

우리들의 묻지 놓친 점:
지금의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쓰듯, 미래의 우리는 하늘을 나는 택시와 로봇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.